

<초청 강연>

동북아경제권시대에 대비한 광주·전남 발전전략 이 건 철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

I. 국토계획 및 여건변화 전망

1. 제4차국토종합계획 검토

가. 「21세기 통합국토」의 기초 및 추진전략

○ 기초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은 '21세기 통합국토 실현'을 기초로 설정.
 - 개발과 환경의 통합, 지역간의 통합, 동북아지역과의 통합, 남북한의 통합

○ 추진전략

-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나. 「21세기 통합국토」 실현상 광주·전남과 관련한 세부추진전략

■ 3×3축의 차세대 국토골격 형성

-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이라는 기초하에 신국토축을 3×3축으로 설정하였음.
 - 3개 연안축 : 환남해축, 환황해축, 환동해축
 - 환남해축(부산~진주~광양~목포~제주) : 국제물류, 관광, 산업특화지대
 - 환황해축(목포·광주~군산·전주~인천(~신의주)) : 대중국 신산업벨트
 - 환동해축(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나진·선봉)) : 환동해권 신산업벨트
 - 3개 동서내륙축 : 중부내륙축(인천~속초), 남부내륙축(군산~포항), 북부내륙축(평양~원산)

- 종래 정부내륙축 중심의 국토축에서 3개의 연안국토축 중심으로 변화할 계획임.
- 특히 환남해축에는 전남과 부산·경남의 주도하에 천혜의 다도해와 남해안의 자연·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남해안 국제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임.
- 또한 서남해안에 동북이를 겨냥한 국제적 개방적 생산교류기반 구축
 - 서해안~남해안으로 이어지는 L자형 신산업지대망 구축
 - 인천, 아산만, 군장, 대불, 광양만·진주, 신산업지대를 연계
 - 국제허브공항·항만, 대륙연계 철도망 등 교류기반 강화
 - 인천국제공항, 부산·광양항을 국제물류중심으로 육성
 - 이들 지역을 TSR(Trans Siberia Railway : 시베리아횡단철도)의 기점으로 설정하거나 TCR(Trans China Railway : 대륙횡단철도)과 연계
 - 신개방 전략거점을 구축하여 지방의 세계화를 주도
 - 물류·가공·수출입이 자유로운 무관세 「자유항」 지정·육성
 -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지역」 육성

■ 광역권의 전략적 개발

-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를 위해 10대 광역권을 설정하여 지방의 세계화 중심지로 집중 개발할 계획임.
- 아산만권, 대전·청주권, 전주·군장권, 광주·목포권, 광양만·진주권, 부산·경남권, 대구·포항권, (강원동해안권, 중부내륙권, 제주권 : 추가 지정)
- 광주·목포권 : 중국 및 동남아경제권과의 국제교류거점, 광소자, 레이저, 광통신 등 첨단광산업 및 지식산업 유치
- 광양만·진주권 : 동북아 중추항만도시 및 항공산업도시, 영호남 협력개발의 시범지역으로 발전

■ 지방도시의 「산업별 수도화」

- 지방대도시를 수도기능의 적극적 분담을 위한 「산업별 수도」로 육성
 - 특정산업군의 본사기능, 지원서비스시설을 적극 유치
 - 광주권은 첨단광산업 및 문화·예술산업수도로 육성
- 여타 지방대도시를 국제물류산업수도, 섬유패션산업수도, 과학기술수도, 메카트로닉스수도, 영상산업수도로 육성

■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의 새로운 활로 개척

- 농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친환경농업 등)와 수출산업화 유도

- 지역경제기능의 다원화와 도농복합형산업 육성
 - 선진국의 농어촌처럼 인근 도시들의 주력산업과 연계한 부품산업 유치 및 농수산 가공산업, 여가관광기능 확대로 노동교류 촉진 및 소득증대
- 조건불리지역이 보유한 자연경관, 개별·도서·산촌 등의 지역적 특성을 「新자원활용지역」으로 활성화
 - 도서지역 : 해양관광, 연육·연도교통망 확충
 - 산간지역 : 자연과 일체화된 산악휴양·여가공간지대
 - 폐광지역 : 폐광시설의 관광자원화 및 새로운 산업 유치
- 도·농간 교류촉진과 농촌소득 증대를 위해 관광농원의 확대를 통한 그린비즈니스 (green business),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 활성화

■ 고속교통·정보통신망 구축

- 전국 어디서나 30분내 고속도로망에 접근가능한 도로망체계 구축
 -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고속도로망 골격 구축
 - 대도시 순환고속도로, 중소도시 우회도로 건설 적극 추진
 - ※ 고속도로 1,900('98) → 6,100km(2020), 일반국도 12,500('98) → 19,000km(2020)
- 중장거리 대량수송을 위한 철도망 확충
 - 호남고속철도 건설
 - 기존철도의 복선전철화 추진
 - 장기적으로 연안철도망 구축
 - 남해안 개발을 위해 목포~보성간 철도 건설
- 국제항만 및 거점항만 육성
 - 광양항을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육성(24선석, 528만TEU)
 - 목포항 등 권역별 거점항만 육성
- 고속고급교통수요에 대비한 공항시설 확충
 - 무안국제공항 등 권역별 거점공항 육성
 - 소형비행기 실용화를 위한 경비행장 건설
- 국가 기간물류망의 구축으로 물류시설을 효율적으로 분담
 - 국가거점 물류기지 : 수도권(의왕·부곡), 부산권(양산), 광양지역
 - 내륙거점 물류센터 :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에 건설
 - 유통단지 : 주요 지역중심지(38개소)를 연계한 유통단지망 구축

- 전남은 중서부, 서남부, 동부권에 건설 예정
- ※ GDP대비 물류비용 감축 : 16.5%('97) → 10%(2020)

- 「디지털국토」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인프라 확충
 - 전국토를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여 「광속의 통합국토」 형성
 - 광케이블망, 디지털전화망, 무선통신망 구축 : 국내외 정보에 신속 접근
 - 낙후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고도의 정보서비스 공급

■ 환경과 조화된 문화·관광 국토기반 조성

- 남해안 국제관광벨트 구축
 - 목포~완도~여수~남해~통영~부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
 - 해양관광자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연육·연도교 건설 확대
 - 장기적으로 서해안, 동해안 연안관광루트 형성
- 세계적 성장추세인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동북아 국제 크루즈루트 개발·운영
 - 천진~서해안~제주
 - 상해~남해안~큐슈
 - 북해도~한반도 동해안~일본 서해안~러시아 연해주
 - 장기적으로 동북아크루즈 허브기능을 보유하는 국제미항 조성(시드니, 싱가포르에 대응하는 거점크루즈항)
- 역사문화권 조성 : 백제, 신라, 가야, 강화, 안동유교지역 등
- 지자체간 공동으로 친환경적인 문화·관광지대 개발
 - 지리산통합문화권 : 남원~장수~곡성~구례~하동~산청~함양

2. 여건변화 전망

- 동북아경제권 형성에 대비한 발전전략 비중 증대
 -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세계경제질서하에서 광주·전남의 입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권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동북아경제권」의 형성 움직임에 주목해야 함. 동북아 경제권은 한국·중국·일본 3국에 의해 중국 동해안, 한반도 서남권, 일본 남부지역을 대상범역으로 하고 있음.
 - 이들 경제권의 형성효과는 지대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양 경제권이 형성되면 아널드 토인비(A. Toynbee)의 예언처럼 세계경제의 중심이 대서양권에서 태평양권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도 나오고 있음.
 - 특히 동북아시아권 국가들은 경제발전수준, 산업구조, 자원의 부존상태 등에서 상

당 부분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 이들을 연계시키면 동북아시아지역의 경제발전잠재력은 막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일본은 막대한 기술과 자본, 중국은 거대한 인력자원, 풍부한 자연자원,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 한국은 급속한 개발경험, 경영관리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인접한 시베리아는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임.
- 이처럼 잠재력이 큰 동북아경제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권역내 각국들은 국가 혹은 지방단위로 야심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광주·전남은 소극적·타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인접국가들의 개발전략 추진사례
 - 일본의 후쿠오카(福岡), 사가(佐賀), 기타큐슈(北九州), 나가사키(長崎) 등은 환태평양시대에 대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도 훈춘, 블라디보스톡, 청진, 나진, 선봉을 중심으로 하는 두만강 하구 삼각주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동북아시대를 대비하여 홍콩~심천~광동의 珠江三角洲, 상해~포동~남경의 揚子江下流, 북경~천진, 대련~심양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내륙 서부지역 개발에도 비중을 두고 있음.
 -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도 「비전2020」 및 「공업화마스타플랜」 등의 장기개발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세계 비즈니스 총괄거점을 지향하면서 세계의 토탈 비즈니스센터를 조성하는 등, 동북아시대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국내적으로도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별로 야심적인 발전전략과 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있음.
- 인구 2,000만명의 수도권은 영종도 신국제공항, 산업의 첨단화, 북경~서울~토쿄를 연결하는 BESETO Line 추진 등, 중추기능을 보강하고 있음.
- 인구 650만명의 부산·경남의 동남권은 울산~부산~창원~마산축의 동남해안 공업벨트, 명산~녹산~신호공단 개발, 가덕도 신항만 건설, 아시안게임 유치, 세계 무역센터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인구 220만명의 대전·청주의 중부권은 대덕연구단지 및 첨단산업단지, 계룡대, 아산만 개발 등의 사업을 계획·추진중에 있음.
- 따라서 광주·전남도 환태평양시대나 동북아경제권 시대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교통시설 확충은 물론, 첨단산업 육성, 2010해양EXPO 개최 등 경쟁력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임.

○ SOC 확충 후 산업화전략 비중 증대

- 지금까지 광주·전남지역 발전정책의 주원인은 SOC 부족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적지않은 SOC가 확충되고 있거나 확충될 계획인 바, 이러한 'SOC가 확충된 이후 어떠한 산업화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가 21세기 광주·

전남발전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음.

- 2005년까지 완공될 주요 SOC 사업만도 서해안고속도로, 고창~장성간 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우회구간, 88고속도로 확장, 광주~망운간 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전남중부고속도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국도 2호선(목포~광양간) 확장, 호남선(송정~목포간) 복선화, 무안국제공항, 광양컨부두(8선석), 여수공항 확장사업 등임(P 13, 표 1).
- 따라서 광주·전남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시에 광산업, 생물산업, 해양산업, 항공우주산업, 조선산업 등을 통한 산업화를 추진해야 될 시점임.
- 행정구역 의미 축소, 개발권역 의미 확대
 - 국토·지역개발은 행정구역이 아닌 별도의 개발권역 단위로 이루어질 것임.
 - 광주광역시를 목포권과 「광주·목포권」으로 통합하여 세계화시대 광주광역시의 내륙도시로서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광주의 중추기능과 목포권의 항만, 공항 등 국제교통시설과 연계, 상호보완효과를 창출하고자 함.
 - ※ 대구-포항권도 동일한 의미임.
 - 아울러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역간 공동사업 추진이 활발해지고 있음. 중앙정부도 광역공동사업에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는 등, 권장하고 있어 더욱 활발해 질 것임.
 - 내륙도시간 연계강화를 목표로 한 광주~대구~대전간 「삼각축」 구상이나 산업간 보완효과를 목표로 한 광주~대구~부산간 「삼각벨트」 구상이 실례임.
- 2010해양EXPO 개최를 통한 광주·전남의 위상 제고
 - EXPO는 일과성 국제적 행사라는 본래 취지 이외에 개최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임. 따라서 2010해양EXPO는 광주·전남의 문화와 산업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적합함.
 - 특히 광산업, 해양산업 등 광주·전남의 특화산업으로 자리할 생물산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WTO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94~'98) 세계 상품무역은 연평균 8% 증가에 불과했으나, 직접투자는 18% 이상 증가하는 급격한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 따라서 2010EXPO를 광주·전남의 광산업, 해양산업, 생물산업에 대한 직접투자 증가를 위한 투자관련박람회로 활용하여 국내외 투자자들을 적극 유인함으로써 이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함.

Ⅲ. 광주·전남의 미래상

1. 기획적인 미래상

- 동북아경제권의 관문 역할 기대

- 21세기 맞은 세계경제질서재편 과정에서 한반도 주변권에서는 한·중·일의 「동북아경제권」 형성이 가시화되고 있고,
- 특히 21세기 세계경제를 주도할 중국의 주요도시인 상해와 지근거리(목포~상해간 671km, 인천~상해간 918km)에 위치한 광주·전남은 대중국 교역규모의 급격한 증가 등, 개방화·세계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중국의 최대 항만도시로 부상할 연운항시가 목포시와 최단거리(600km)에 위치해 있어(목포시~연운항시간 항로 개설 임박), 일본 후쿠오카(나가사키)~목포~연운항~유럽으로 이어지는 海·陸노선의 개설을 예상할 수 있음.
- 결국 광주·전남은 중국과 일본의 지리적 중심이라는 이점을 활용하면, 동북아의 관문이자 중심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며, 특히 대중국교류는 지정학적으로 상해시 및 상해와 남북으로 인접해 있는 江蘇省이나 浙江省을 대상으로 촉진될 것임.

○ SOC가 잘 갖춰진 서남권의 새로운 성장거점

- 기존의 국토개발을 선도해 왔던 수도권이나 동남권(부산권)이 과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발전의 한계에 따라 향후 국토개발축은 서남권으로 이동하고 있음.
- 서남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도 계획되어 있는 SOC가 원활하게 건설되면, 광주·전남은 국제 공항 및 항만,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가 잘 갖춰진 ‘물류비용이 저렴한’ 지역으로 국내외 민간기업의 관심이 제고될 것임.
- 더욱이 광주·전남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부정적인 점을 오히려 기회적인 요인으로 극복할 수 있음.
- 따라서 광주·전남지역은 이러한 SOC 확충과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려 수도권, 동남권에 대극하는 한반도 서남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하게 될 것임.

○ 지역의 발전잠재력을 재인식한 국내외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

- 광주·전남에 대규모 SOC가 확충되면 물류비용의 감소 등으로 인해 지역발전잠재력이 발휘되어 국내외 민간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될 것임.
- 특히 목포권으로의 도청이전과 2010해양EXPO 개최가 확정되면 광주·전남에 대한 국내외 민간기업의 관심과 투자가 배가될 것임.
- 더욱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서 역내외 민간기업의 활동영역이 확대될 것임.
- 한편 종래의 공업위주 지역개발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산되어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환경, 관광, 문화·예술 등의 자원이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바, 타지역에 비해 보전적이고, 관광, 전통 문화자원이 풍부한 광주·전남지역은 이들 자원을 통한 발전잠재력이 큼.
- 특히 2010해양EXPO 개최가 확정되면 세계박람회가 세계적 무역업자 주도하에 신기술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광주·전남은 해양관광은 물론, 광산업, 해양·생물·우주항공산업 등의 메카로 자리할 것임.
- 따라서 ‘동북아의 관문’, ‘한반도 서남권의 새로운 성장거점’, ‘2010해양EXPO 개최

지'라는 지역발전잠재력과 함께 개발가능지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광주·전남지역은 용지개발과 입지 등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해양관광과 첨단 관련 제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가 활성화될 것임.

- 첨단산업과 전통적인 문화예술산업이 주도하는 산업구조
-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자원과 자본 중심에서 지식과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맞춰 광주·전남권의 산업도 첨단광산업과 비교우위자원인 농수산물과 해양·도서를 활용한 해양산업, 생물산업 등이 중심이 된 고부가가치산업, 저공해성산업, 자원절약형산업이 주도할 것임.
- 또한 고흥 나로도에 건설될 「우주발사센터」와 연계한 우주과학산업, 무안공항과 광양·목포항과 연계한 항공, 조선산업도 활성화될 것이며, 아울러 전통적인 문화예술자원도 상품화와 함께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등장할 것임.

2. 부정적인 미래상

-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인력의 수급 불균형
-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특히 전남은 매년 1.69%씩 감소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감소인구의 대부분을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여 고령화율이 높아짐으로써 결국 산업인력은 수급면에서 공급부족상태를 면치 못할 것임.
- 특히 광주·전남지역이 추진하고 있는 광산업, 생물산업, 문화·예술산업, 우주항공산업, 조선산업 등의 인력수급의 차질이 예상되어 지역산업발전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될 것임.
- 도시화의 진전으로 농촌인구의 감소
- 2005년 전국의 예상 도시화율은 90%로 국토 전체가 도시화될 전망인데, 광주·전남은 도시화가 가속되어 도시화율이 2005년에는 86%에 이를 것임.
- 이러한 농어촌의 인구유출은 농어업의 경쟁력이나 농어촌의 관광산업 진흥에 걸림돌로 작용될 것임.
- 정보인프라 취약으로 인한 정보력 격차 심화
- 「산업화에서는 뒤졌더라도 정보화에서는 앞서겠다」는 자치단체의 다짐과는 달리 정보화의 기본인 PC, E-Mail 등의 정보인프라가 취약함.
 - 1인당 PC 보급량, E-Mail 및 Home-Page 이용량이 전국 최하위 수준.
 - 이러한 정보인프라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영·호남간 격차도 큼.
- 결국 정보인프라의 취약은 SOC에 이어 지역발전의 두번째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주민의 개발의지 증대에 따른 집단·지역이기주의 팽배

- 지방화와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지역개발에 주민의 의지 및 지역간 경쟁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주민의 욕구수준이 높아질 것임.
- 아울러 선호시설이나 비선호시설 등의 배치에도 주민의사가 이기적으로 반영되어 시설물배치장소 선정과 관련한 어려움이 예상됨.

IV. 21세기 광주·전남 발전전략

1. 발전방향

- 광주·목포권과 광양만·진주권을 양대 거점으로 발전시키되, 여타 소외지역인 중남부 낙후밀집지역과 해양·도서지역을 각각 개발촉진지구와 해양관광지구로 지정, 개발시킴 ⇒ 「2권역 2지구」 공간구조를 통해 광주·전남 공생의 틀 마련.
- 동북아경제권 형성에 대비한 SOC 확충 및 산업진흥계획 수립
- 지역의 선도신산업인 광산업, 생물산업, 해양산업 등 경쟁력 제고

2. 발전전략

가. 2광역권 2지구 공간구조 정립

- 광주·전남지역발전의 공간구조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부터 『3핵 3축』 구조가 정립되어 왔음.
 - 3핵 : 광주대도시권, 목포권, 광양만권
 - 3축 : 광주~목포축, 목포~광양축, 광주~광양축
- 그러나 『3핵 3축』 구조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 목포권과 광양만권의 중간지역인 중남부 낙후밀집지역의 정체 심화
 - 지역균형개발법에 의거 전국 10대 광역권에 광주권과 목포권이 통합
 - 내륙 중심의 구조로서 해양·도서발전전략 추진 어려움
 - 광주~광양축은 동북부 산악지역으로 축으로서의 기능 발휘가 어려움.
- 이러한 『3핵 3축』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세계화에 대비하여 해양지향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국토공간구조에 대비하기 위해 광주·전남지역의 공간구조는 광주·목포권과 광양만·진주권의 2광역권, 그리고 다도해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휴양지구와 중남부 낙후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촉진지구의 『2광역권(Region) 2지구(Area) : 2R-2A지구』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광주·목포권은 동북아경제권의 물류 중심이자 임해형 기간산업단지, 광양만·진

주권은 태평양진출 교두보 및 중화학공업벨트로서 조성하고,

- 이들 양 성장거점의 발전효과를 효율적으로 파급시키기 위해 광주~광양축, 나주~광양축, 목포~광양축의 3발전축을 개발하며,
- 2광역권에 포함되지 않은 강진, 장흥, 보성 등 중남부 낙후밀집지역과 신안, 완도, 진도 등 해양·도서지구는 각각 개발촉진지구와 해양관광·여가지구로 지정하여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추진함.

- 이러한 구도하에서 광주·전남지역의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지역의 성장거점에 새로운 산업지대를 조성하되, 지역내는 물론 동북아경제권내의 교류가 원활한 지역과 전후방연관효과가 높은 산업을 배치함으로써 파급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함.

■ 권역·지구별 개발전략

○ 광주·목포권 개발전략

- 광주의 중추기능과 목포권의 해양진출 용이성을 보완하여 동북아 및 한반도 서남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함.
- 광주의 첨단산업단지과 목포의 대불, 삼호산단을 중심으로 나주, 장성 등에 연관단지를 조성하되, 광주, 목포, 나주 등 도시가 가지고 있는 하부구조를 최대한 이용하여 공해가 적은 기술집약형 첨단산업을 배치함.
- 나주, 담양, 장성, 화순, 함평, 곡성 등 광주인근지역은 광주대도시권의 휴양 및 쾌적한 정주도시로 육성함.
- 또한 광주·목포권은 동권역과 지리적으로 지근거리에 있는 상해 인접지역에 조성 예정인 고부가가치산업기지와 연계한 공업지역으로 개발함.
 - 특히 최근 중국 황해연안지역의 노동집약적 조립산업으로 파생되는 중간재의 수요를 겨냥하여 부품산업을 우선 배치함으로써 동북아경제권의 공업제품 교역중심지역으로 개발해야 할 것임.

○ 광양만·진주권 개발전략

- 연담화되어 있는 여수, 순천, 광양시 등의 도시기능과 광양컨테이너부두를 활용하여 환태평양 진출거점으로 육성함.
 - 2010해양EXPO 개최를 계기로 남해안 관광 및 해양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함.
- 광양 국제컨테이너항을 활용하여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공업지역으로 개발하며, 아울러 기존의 광양제철소 및 관련단지, 여천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벌교 등 인근지역에 제강제품 및 석유화학제품 등 계열성·연관성이 높은 연관산업 및 조립금속과 기계공업의 입지를 위한 대규모 산단을 개발해야 함.

- 개발촉진지구 및 연안지구 개발전략
 - 신안, 해남, 진도, 완도 등 서남해안지역은 해양 및 도서개발을 위한 『해양관광·여가지구』로 지정·육성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양 광역권역에서 제외된 강진, 장흥, 보성 등 중남부 낙후밀집지역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중앙정부 지원하에 관광개발사업, 도농통합형 중소기업단지 조성사업, 향토산업 육성을 통한 농어촌 소득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해야 할 것임.
- 3축 개발전략
 - 광주·목포권과 광양만·진주권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목포권의 중심도시인 광주, 나주, 목포와 광양만권을 연계하는 광주~광양축, 나주~광양축, 목포~광양축의 3축을 특화 개발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확장된 호남(남해)고속도로 외에 망운~나주~화순~보성~광양간의 전남 중부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고속화도로, 목포~보성간 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시급히 확충해야 함.
- 결국 전남지역의 발전전략은 장기적으로 2광역권 3축 2지구 구도 하에서 새로운 산업지대 조성을 통한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지화, 대외교역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이들 산업지대 및 전진기지의 접근도를 제고하고 개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SOC의 확충 및 특화산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함.

나. SOC 확충

- 지금까지 광주·전남은 SOC 부족으로 인한 물류비용의 과다(매출액 대비 전국평균의 1.5배)로 공업화율이 전국 최하위
 - 광역교통망 및 물류시설의 미흡은 물류비용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물류비용이 역외 대기업들의 투자 기피현상을 초래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여 지역의 공업화율은 전국평균 25%에 훨씬 못미치는 10% 이내임.
 - 이와 같이 현재 지역의 전반적인 SOC 현황은 민선시대에 접어들면서 개선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고 있음.
- 따라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나 광역개발계획 등 상위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SOC가 반드시 확충되어야 함.

<표 1> 주요 SOC 확충계획

사업명	사업내역	완공연도	사업명	사업내역	완공연도
서해안고속도로	도내 구간 60km	2001	목포~광양 국도2호선 확장	152km	2005
고창~장성고속도로	19km	2002	서남해안일주도로	영광~광양 793km	2011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담양수북~장성남면~나주산포~화순읍 35km	2005	호남선 복선화	송정~목포 70km	2002
호남고속도 우회구간	25.3km	2001	목포~보성간 철도	77.5km	2020
88고속도로 확장	도내 구간 19km	2001	서남권신산업철도	일로~대불~삼호~신외항 17.6km	2006
광주~망운고속도로	34km	2002	전라선 개량·복선화	개량 163.9km, 복선화 208.3km	2009
광주~완도고속도로	116km	2020	목포신외항	22선석(3만톤급)	2011
목포~광양고속도로	115km	2005	광양컨테이너부두	24선석	2011
전주~광양~여수고속도로	125km	2005	무안국제공항	75만평, 2,500m	2002
국도 17호선 연장	돌산~고흥포두 37km	2010	여수공항 확장	2,150m	2002

- 추가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건설되어야 함.
- 광주·목포 광역권역의 핵심 광주와 목포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국도 1호선 외에 광주~망운~목포간 고속도로와 광주~나주 동강~몽탄~일로~신도청소재지~목포간 고속도로를 건설(상기 노선 가운데 몽탄~일로~신도청소재지~목포 구간은 서해안고속도로 구간 활용 가능)
- 지역의 비교우위성 자원인 해양·도서자원 활용 차원에서 돌산~(구)여천 도서~고흥 포두간 연륙·연도교(국도 17호선 연장) 건설사업과 압해~눌도~고하도~화원관광단지간 연육·연도교 건설사업을 동·서의 밀레니엄 프로젝트로 추진함.
- 양 사업은 각각 2010해양EXPO와 무안국제공항과 화원관광단지를 연결하는 효과가 있음.
- 철도망이 전무한 전남 중부권에 나주~완도간 철도망을 확충함으로써 전남 남부 및 제주지역의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기능을 갖도록 함.
- 목포 신외항을 광양컨테이너부두와 함께 동북아경제권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고,

목포권이 본격 개발되어 해상수요가 33만톤에 이르는 2006년 이후 압해항만을 추가로 개발함. 채산성 확보가 가능한 중국 컨테이너화물의 중계수송시설로서 적합하기 때문임.

- 청도, 천진, 대련 등 상해 이북의 중국항만은 수심이 낮아 원양항로의 모선취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변 항만으로부터 중계수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목포권 항만은 상해 이북 항만에 대한 중계수송항으로서 고베·카오슝 등 경쟁항만에 비해 거리가 짧고, 항만개발비가 낮기 때문에 중계수송의 채산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됨.

○ 그리고 정보화 촉진 차원에서 시·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정보통신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를 구축함.

- 농어촌지역에까지 정보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1인 1pc, 1인 1e-mail, 1인 1home-page의 1인 1사이버하우스 환경 구축
-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통신산업기반 강화 차원에서 광주·전남에 문화, 예술, 영상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멀티미디어·영상, 애니메이션단지를 조성함.
- 21세기형 첨단지식산업과 연계된 정보산업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을 지닌 전문인력, 기술, 정보인프라 등을 상호 연계시켜 정보, 인력, 기술정보를 공유하는 「지식정보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함.

다. 산업화 촉진

- 유망 지식기반산업의 지역특성화 추진
 - 광주·전남이 지식기반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지역의 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유망 지식기반산업을 선정하고 이들 산업을 특성화하는 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지방도시의 산업별 수도화계획에 의거,
 - 광주권은 첨단광산업을 중심으로 첨단자동차,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통신산업, 문화·영상산업을,
 - 전남은 생물산업을 중심으로 해양산업, 항공·조선산업, 우주과학산업, 신소재, 정밀화학, 관광산업 등을 유망 지식기반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기업의 지식경영체계 도입, 지역과학기술 혁신체계의 구축, 지식근로자의 양성 및 훈련체계의 구축, 각종 행정·재정·금융·입지지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광주 광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사업
 -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에 광산업 특화단지 조성(산업용지 5만평)
 - 광산업지원센터 설립(공동지원시설용지 2만평) : 시험생산공장, 광제품전시홍보관, 미세가공 지원센터, 광계측 및 인증검사 지원센터, 정보지원센터 등

- 광기술산업화센터 설립 : 광소재 및 부품산업화 센터, 신광원개발센터, 광네트워
크 소프트웨어개발센터, 광기술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자금지원
 - 경영자원 지원 :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광관련 학과 및 기관 지원, 국내외 투자
유치 및 수출진흥 등
 - 전남 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사업
 - 생물산업 제품개발 및 산업화 지원
 - 지역별 R&D센터 운영(광주, 목포, 순천권의 각 1개 대학을 거점화)
 - 인재양성 및 재교육(장학금지원, 산학협동연구, 연수지원 등)
 - 생물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집적화단지 조성(나주)
 - 전남 BIOTOP 설립(기획, 창업, 기술 및 경영지원, 대외협력, 홍보 등 전남생물산
업 통합관리)
 - 생물자원센터 설립(국내외 생물자원의 개체별 보전 및 연구시스템 구축)
- 첨단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 먼저 첨단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첫째, 지식·기술집약적인 중소벤처기업을 적
극적으로 육성해야 하며, 둘째, 지식기반산업과 관련된 지역내 중소기업이 벤처기
업으로 전환하거나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함.
 - 우선적으로 첨단기술과 연관된 선도 중소기업을 선정, 이들에 대한 자금 지원과
벤처기업으로의 전환 적극 추진 및 다양한 창업 투자재원을 마련해야 함.
 - 또한 벤처기업 창업타운,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빌딩 및 벤처기업센터 등 벤처
기업용 입지공급을 확대해야 하며, 동시에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젊고 창의적인
벤처기업인들이 신기술·지식집약형 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창업자
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함.
 - 그리고 이러한 지식·기술집약적인 중소벤처기업 진흥과 함께 지역내 부존자원을
가지고 지역적인 기업집단을 이루면서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높은 특산물을 오
랜 기간 동안 생산·판매하고 있는 전통 중소기업도 육성해야 함.
 - 이를 위해 효율적인 추진체제 구축,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판로 및 수
출지원 확대 등과 같은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특히 첨단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술고도화 지원방안이 수립
되어야 함.
- 지역기술혁신체계의 구축 및 전문인력 육성
- 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기술인프라 등의 요소가 대부분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광주·전남의 기술관련 인·물적시설이나 재원이 대단히 취약함.
 - 지역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과기원 등 대학 및 공공연구소
와 같은 학술연구기관, 금호생명과학연구소 등의 민간기술연구소, 정보센터 등의
기술혁신 인프라의 구축과 강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 이들 시설과 지식·기술집약적인 벤처기업, 그리고 지차체간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기술력이 취약한 지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산·학·관·연」 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임.

- 또한 지자체에 과학기술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하며, 지역 차원의 기술·벤처금융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기술전문인력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 지역내 대학의 이공계 학과 증설이나 통·폐합 등이 지역의 산업진흥정책과 연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칭 「산·학·관·연 협의회」를 상설화하는 조치가 필요함.

○ 해양 등 지역의 비교우위자원을 활용한 산업진흥전략 추진

- 세계화와 지방자치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발전전략으로서 각 자치단체들은 타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도록 경제성 및 성장률이 높은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러한 지역발전잠재력이 큰 인자로서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전국 최대의 해양·도서자원을 들 수 있는 바, 워터프런트 개발, 컨벤션산업, 해양휴양·관광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산업 진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이러한 해양산업 진흥의 당위성은 해양개발에 앞선 선진국 해양관련산업의 높은 경제성과 성장률에서도 찾을 수 있음.
 -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이익 대 비용'이 전체적으로 4.4배에 달하는 가운데서도 연안을 활용한 레크레이션 즉 관광위락개발은 무려 8.1배에 달하고 있음.
 - 이러한 해양개발의 성장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미국 증권회사인 Hayden Stone사의 추계를 보더라도 해양개발관련산업의 연평균 성장율은 11.8%로서 앞으로 자동차산업이나 철강산업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2> 미국의 해양관련산업 투자효율 예측

분 야	이익 대 비용(배율)	비 고
어 업	5.8	
해저광물 채굴	3.7	
외 항 해 운	1.0~3.5	분야별로 효율의 차가 큼
장기 기상예보	6.5	
연안폐기물 처리	2.6	
연안레크레이션	8.1	
전 체 평 균	4.4	

자료 : 미국 전국과학아카데미, Economic Benefits from Oceanographic Research.

○ 대중국 연계성을 강화한 산업진흥전략 추진

- 광주·전남지역의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지역의 성장거점에 새

- 로운 산업지대를 조성하되, 지역내는 물론 동북아경제권내의 교류가 원활한 지역과 전후방연관효과가 높은 산업을 배치함으로써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함.
- 예컨대 중국 상해를 중심으로 남북에 인접해 있는 江蘇省과 浙江省을 중심으로 한 황해연안지역과 연계성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지대를 조성해야 함.
 - 상해를 중심으로 한 江蘇省과 浙江省은 중국 「국가계획위원회」가 권역별로 차별적인 지역개발정책과 산업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발표한 10대 경제권 중의 하나인 「양자강델타경제권」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황해연안지역 11개 성·시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으며, 국가계획위원회는 이 지역을 중·고급부가가치 제조업과 3차 산업의 직접투자 대상지역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현재는 광주·전남지역과의 교류가 미미한 지역이지만, 앞으로는 첨단기술형이나 금융·서비스업종에서의 교류가능성은 큼.
 -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주의 첨단산업단지, 평동 외국전용산단을 중심으로 인근 나주에 연관산업단지를 조성하되, 광주시와 나주시 등 도시가 가지고 있는 하부구조를 최대한 이용하여 공해가 적은 기술집약형 첨단산업을 배치해야 할 것임.
 - 동시에 최근 중국 황해연안지역의 노동집약적 조립산업으로 파생되는 중간재의 수요를 겨냥하여 부품산업을 우선 배치함으로써 동북아경제권의 공업제품 교역중심 지역으로 개발해야 할 것임.
 - 마침 중앙정부는 「지방도시의 산업별 수도화와 기능전문화」 계획에 의거, 광주권을 첨단광산업 및 문화·예술산업수도로 육성할 계획임.
 - 구체적으로 광주권은 첨단광산업부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특화하여 서울에 집중된 수도기능을 분담하고, 해당산업군의 본사기능, 지원서비스시설을 적극 유치하고, 해당분야에서 성취를 원하는 인재양성 및 정착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광주권을 첨단광산업 및 문화·예술산업수도로 육성한다는 것임.
 -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광주권에 기회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요인들을 지역발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광주권의 기능을 전문화하여 주력산업군집(산업클러스터)을 육성해야 함.
 - 원료·부품공급업체, 대학, 연구소 등 관련조직체가 공존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 실리콘벨리, 스위스 바젤, 이태리 몬테벨루나 등을 벤치마킹하여 상해를 중심으로 남북에 인접해 있는 江蘇省과 浙江省을 중심으로 한 황해연안지역과 연계성이 높은 첨단산업지대를 조성해야 할 것임.

V. 정책적 제언

■ 중앙정부의 지역발전잠재력 재평가 및 국토균형개발의지 확고

- 이상과 같은 광주·전남발전전략 성패 여부는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균형적인 국토개발에 대한 정책의지와 지역별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개발전략에 달려 있음.

- 지역별 발전잠재력을 감안하지 않는 획일적인 지역개발정책은 중복성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국내외 선형사례에서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국토균형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가 획일적인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발전잠재력을 충분히 살려주는 차별화된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방의 개발의지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 결국 광주·전남과 관련한 지역개발정책은 ① 동북아의 관문이자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 ② 지역의 전략산업인 광산업과 생물산업 특화 개발, ③ 비교우위자원인 해양·도서, 농수산물,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전략 등에 특화될 때 국가경쟁력과 지역경쟁력이 동시에 제고될 것임.

■ 지방의 독자적인 대응전략 마련 및 주민의 주인의식 제고

- 지방도 중앙정부의 과도한 의존자세에서 벗어나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독자적인 대응논리를 마련해야 함.
- 이와 함께 지역주민의 의식도 성숙되어야 함. 단순한 수혜자로서만이 아닌 지역개발의 주체로서 참여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함.
 - 국내외 민간투자자들이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지역개발과 관련한 중·소규모 시설 투자에 앞장서는 자세가 필요하며,
 - 「내고장 관광지 애용운동」, 「지역연고기업제품 사주기운동」 등, 지역에 사람과 자본이 유출되지 않고 유입되도록 노력해야 함.
- 아울러 지역주민의 세계경제의 질서나 체제의 변화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함.
 - 세계화에 대한 대응은 커녕, 그 의미마저 축소되어서는 안되며, 한반도나 광주·전남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동북아경제권이나 통일 등의 주변 경제여건 등에 대한 이해의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세계화 속에서 우리 지역과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함. 오늘날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경제질서의 변화과정 속에서 미국의 실리콘벨리, 영국의 웨스턴 클레스톤 지역처럼 기업에 의해 새롭게 선택된 지역이나 새롭게 변화하는 추세에 잘 적응한 지역은 발전하는 반면, 기업으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새로운 추세에 적응하지 못한 지역은 쇠퇴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